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성과

전북기계공고 졸업생 취업지원센터, 작년 AI 면접실 운영 올해 취업지원사이트·앱 개설... 졸업생에 큰 호응 얻어

국립마이스터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가 운영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점 학교를 지정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직업계고, 인문계고 졸업생, 군 지역 졸업생 등의 취업자원을 돕고 졸업생 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지원센터는 2021년 비대면 면접이 확대됨에 따라 AI면접실을 갖추고 자기소개서와 대기업 면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해는 취업 지원 사이트(https://www.jobmtcokr) 및 앱(전라북도 졸업생 검색) 개설을 통해 채용업체에 빠르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졸업생들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 첨삭과 전문 강사를 통한 대기업 모의면접을 진행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주),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주), 불보그룹코리아 휴비스(주), SK케미칼 GS칼텍스 OCI(주), 한솔제지(주), 두산퓨얼셀(주) 등 대기업 40명, 중견기업 42명, 중소기업 31명 등 총 113명이 취업했다.

졸업생에게도 재학생과 똑같이 취업 교육, 취업처 안내, 산업체 동행면접, 위탁교육, 면접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전북기계공고는 전라권의 거점학교로서 본교 출신 졸업생뿐만 아니라 타 고등학교 34세 이하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교육부 주관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1억원 씩 3년간 총 3억원을 지원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2



전북기계공고가 운영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기업 취업컨설팅 캠프

북기계공고 졸업생취업지원센터(063-720-5385)로 연락하면 출신학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교육부 주관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1억원 씩 3년간 총 3억원을 지원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2

년을 연장에 총 5년 동안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고졸 졸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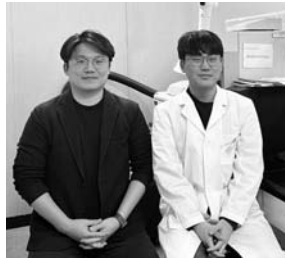
두승 교장은 "우리 학교는 졸업생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해상 유출 기름, 기존보다 빠르게 흡착'

전북대 강진혁씨, 흡유제 연구... 세계 저널에 1저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강진혁 학부생(유기소재생유공학과 4년, 지도교수 남창우)이 친환경 재료 분야 연구 성과를 통해 환경 분야 세계적인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학부생이 1저자로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강진혁 학생은 이 저널에 '수직으로 정렬된 셀룰로오스 스마트 스폰지를 통한 초고속 윤디멘드 오일/수분 분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기존 보다 4배 이상 빠르게 흡착하는 흡착제 개발 관련 연구다. 개발된 흡착제는 기존 폴리프로필렌 기반 유흡착제와 달리 정렬화 된 기공 구조를 갖고 또한 합성 고분자가 아닌 쌀 나무에서 탈리그닌화한 셀룰로오스 기반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에 기존의 합성 고분자 기반의 흡유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



전북대학교 남창우 교수(사진 왼쪽)와 강진혁 학생

되고 있다.

한편 강진혁 학생은 이 연구 성과를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강진혁 학부생은 "남창우 교수님 과 함께 학부연구생으로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부터 같은 석·박사 통합 과정을 통해 이번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

고른기회전형 I서 92명

고른기회전형 II서 23명

21일 추가 합격자 발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원내 교직적성우수자, 지역인재선발 고른기회전형 I에서 92명, 정원외 고른기회전형 II에서 23명 등 총 115명을 선발했다.

전형별 지원 결과, 127명 선발에 506명이 지원해 평균 3.98: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또한 전체 합격자 중 도내 우수 인재 합격자는 52%로 타지역의 48%보다 다소 높았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16~20일까지 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미등록 충원과 추가 합격자 발표는 21~27일 진행된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모두 축하한다"며 "초등교육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양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재난안전교육센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우수'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재난안전교육센터가 2022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센터는 스킨스쿠버, 바다체험, 갯벌 연안체험 등 연안체험활동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반교육, 수상교육, 수중교육, 통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 남 포함 등 섬 지역이나 원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센터장인 윤형완 교수(응급구조학과)는 "변이바다인 우리 나라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려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수상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교사 3명,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왕궁초 김호성·삼기초 이대혁·기전여고 김경희 교사

'2022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도내에서는 3명의 교사가 선정됐다. 예년의 수상자가 1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의 과학 교사상에 왕궁초 김호성 교사, 삼기초 이대혁 교사, 전주기전여고 김경희 교사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신나는 과학교육을 추진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교사를 발굴·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어 초등 15명, 중등 15명 등 총 30명을 선발했다.

먼저 김호성 교사는 교사연구회 활동, SW·AI 선도학교 및 과학활동 중심학교 운영, 학생과학동아리 활동, 지역과학교실 운영 등에서 실



김호성 교사



이대혁 교사



김경희 교사

력을 인정받았다. 또 이대혁 교사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운영, 발명·영재교육, 교사연구회 활동,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업사례 보급을 통해 보여준 교육활동의 열정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교사는 전북과학축전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 사회배려학생 과학캠프 운영, 교사연구회 활동, 학생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의 노력으로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에 수상한 교사들은 "과학교육을 통해 학생과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2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은 14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됐다. 선정된 교사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고, 두산연강재단 후원으로 외국 연구 기회도 제공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과정생 10명이 지난 13일 열린 전북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 경쟁력 강화·지역산업 발전 이바지

신주희씨 등 전북대 융합기술경영학과 과정생 10명

전북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시상식서 수상 영예

전북 인물대상 지역발전사회봉사부문 대상에 한중선씨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과정생 10명이 지난 13일 열린 전북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전북대 융합기술사업화혁신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관대규·이하 MOT사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 신주희(삼정농산) 과정생을 비롯, 도지사상 홍화영(탄소기술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김준기(농업기술원), 조승혁(알고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강보라(연구재단), 최영란(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장상 정미림(식품연구원), 원종학(연구재단), 임현호(한림기술) 등이 수상했다.

또한 전북 인물대상에서는 지역발전 사회봉사부문 대상에 한중선(한중선 공인회계사사무소) 과정생이 수상했다.

전북대 융합기술경영학과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지자체 기관 근무자들로 구성된 대학원 과정이다. 지방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과정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과정생 중 이인호 대표(그론)는 벤처기업협회장을 맡아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홍보 및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MOT 사업단의 이인호, 유기달, 한중선, 박종호, 신주희, 임현호, 김문석 과정생은 익산 지역의 초록우산이인회 회장 및 이사를 역임하는 등 사회복합 사업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전북 인물대상을 수상한 한중선 초록우산이인회재단 익산후원회 이사는 "많은 과정생이 기업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된 전북대 융합기술경영학과에 입학해, 수업에서 알게 된 ESG 경영 중 Scary를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화학공학부 학생 아이디어, 전국대회 수상 휩쓸다

'ESG 가치 확산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페스티벌' 서금·은·동·장려상 등 수상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5개 팀이 최근 열린 '디지털전환시대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에서 금·은·동·장려상 등을 휩쓸었다고 전했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전국 23개 대학 72개 팀이 북북 뒤흔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린 경쟁을 펼쳤다.

이 대회에서 화학공학부는 '음식 부패 감지를 위한 AI 냉장고 제작(조영석, 황정환, 박정형, 채정수 학생·지도교수 임연호)'으로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폐기물로 백금을 대체할 수 있다'(최유나, 강유진, 이지이, 임채희, 강시원 학생·지도교수 김필)' 아이디어가 은상을 받았다.

또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친환경 플렉시블 발광 디바이스(김예지, 송다연, 신영은, 안지훈, 오승현 학생·지도교수 김민)'와 '송화기류를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 전극 소재 개발(최인환, 강승재, 김재엽, 김지혜, 김이경, 안지현, 한규태·지도교수 김성곤, 김도교수 임연호)' 아이디어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이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활용한 자가발전식 스마트 스텔존(김경진, 이창규, 윤준영, 김유라 학생·지도교수 서영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신한 이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5개 팀이 최근 열린 '디지털전환시대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에서 금·은·동·장려상 등을 휩쓸었다.

디어는 전북대 화학공학부가 1학기부터 진행해 온 '화학공학종합설계'를 통해 탄생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 아이디어를 정하고, 화학공학부 교수들이 기계이 자문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제 시제품 제작까지 이뤄내는 등 이 학과만의 학생 경쟁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4학년 1학기 정식 교과목이기도 한 '화학공학종합설계'는 화학공학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기 설계과정을 경험하면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결정하기도 하고,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상 학생들은 "1학기부터 진행해 온 화학공학종합설계의 결과물로 큰 대회에서 모두가 함께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문에 준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며 "개발된 기술들이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운전직연합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

전북교육청 산하 운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운전직연합회(회장 차재영, 금마초등학교)는 지난 12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회원들이 1인당 1만원씩의 후원을 통해 조성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14일 운전직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학생 10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도내 14개 시·군 별로 1명씩 총 14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장학금 전달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14개 시·군별로 해당 학교에서 개별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